

# 경남도, 소상공인 핀셋 전략 강화... 정책자금 용자 지원

12일부터 신청 받아 2000억 지원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 계획  
기존 분기별 배정서 월별 배정 변경

경남도는 올해 도내 소상공인 정책 자금 2000억 원을 오는 12일부터 신청 받아 용자 지원한다.

특히, 신규 창업 및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한 핀셋 지원을 강화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로 소상공인 비율 등에 따른 배분 한도를 설정해 자금의 지역별 형평성을 높이고, 기존 분기별 배정에서 월별 배정으로 자금 배정방식

을 변경해 적기에 필요한 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2023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창업 ▲경영안정 ▲명절 ▲희망두드림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창업 부문은 200억 원을 배정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인 도내 소상공인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 중 성공도약드림 교육(구 경상남도 소상공인 창업성공사다리 지원사업)'을 수료한 창업 5년 이내 소상공인이다. 기존 창업자를 위한 정책자금이 경영안정 자금과 함께 편성되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창업자금을 분리해 새내기 창업자의 성공적 안착지

원을 강화한다.

경영안정자금은 기존에 여러 부문으로 나뉘어져 수요자에게 혼동을 주었던 특별자금 재원들을 경영안정자금으로 통합했으며, 1300억 원을 배정했다. 자금 수요가 많은 명절을 대비한 명절자금은 총 200억 원으로, 설과 추석에 각각 100억 원씩 배정했다.

창업·경영안정·명절 3개 자금의 용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다.

경남도에서는 용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하고, 보증수수료 0.5% 감면을 지원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는 '희망두드림 자금'은 전년 대비 50억 원 늘어난 300억 원을 배정했다.

대표자가 ▲장애인, 탈북자,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 ▲개인신용평점 779점 이하 저소득자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자 중 하나에 해당되는 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용자 한도는 업체당 3000만 원 이내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이자차액 보전과 보증수수료 감면 혜택은 다른 자금과 동일하다.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2000억 원 중 400억 원은 1월에 지원된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전남도-농협중앙회

#### 섬지역 식수난 해결 앞장

전라남도와 농협중앙회는 지난 6일 도청에서 지난해부터 지속된 가뭄으로 어려운 5개 도서지역에 1억 원 상당의 생수 총 400톤을 지원하는 생수 전달식과 수송차량 환송식을 개최했다.

생수 전달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박종택 본부장과 정재현 영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전달받은 생수는 현재 제한급수가 이뤄지는 완도 노화·보길·금일도 등 5개 섬지역 주민 1만 3000여 명에게 약 2주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전남지역은 지난 1973년 기상관측 이래 50년 만에 최저 수준의 강수량을 기록하면서 도 모든 지역에서 생활용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광주광역시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 2023'에 첫 참가한 광주 공동브랜드 '지엘(GIEL)' 기업의 ㈜벤텍프런티어가 미국 바이러스엑스버스터사와 연간 1000만 달러 수출계약과 함께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 광주기업 1000만弗 수출계약

광주 공동브랜드 'CES2023' 참가  
수출계약 외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 2023'에 첫 참가한 광주 공동브랜드 지엘(GIEL) 기업의 ㈜벤텍프런티어가 미국 라스베이거스 전시장에서 1000만 달러 수출계약과 함께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는 CES에 참가한 ㈜벤텍프런티어가 미국 바이러스엑스버스터사와 1000만 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벤텍프런티어는 공기정정·살균기 제품을 판매하는 가전제품 생산기업이다.

이번 계약 성공으로 ㈜벤텍프런티어는 올해부터 매년 1000만 달러 규모의 공기정화살균기를 미국으로 수출한다.

수출계약과 더불어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으로 해외판로 개척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미국 뉴욕에 있는 바이러스엑스버스터사는 브랜드마케팅 전문 기업이다.

바이러스엑스버스터 올리비아 김 대표이사는 "우선 연간 1000만 달러를 수출하지만 기술과 제품이 우수해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다"며 "혁신기술 가전제품으로 유명한 다이스터럽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윤중㈜벤텍프런티어 대표는 "기존 제품의 한계를 보완해 공기흡입 신기술을 개발하고 제품 효과를 높였다"며 "끊임없는 기술개발 과정 덕분에 처음 참가한 CES에서 수출계약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CES 첫 참가에서 지역 가전기업이 큰 수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에 감사하다"며 "세계적 전시회에 더 많은 지역기업들이 참가해 수출계약과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 전남도, 관광진흥기금 100억 용자 지원

대출금리 1.0%로 확정

전남도가 관광업계의 경영 안정을 돕고 관광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3년 관광진흥기금 용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용자 규모는 100억원으로 상반기에 70억원을 배정하고 대출금리는 최저인 1.0%로 확정했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2월3일까지 사업체 소재지 시·군 관광부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관광진흥기금 용자 대상은 관광숙박업, 관광편선업, 야영장업, 한옥체험업, 여행업 등 민간 관광사업체로

시설 확충과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용자 한도는 대상 업종과 용도에 따라 1억원에서 최대 30억원이다.

상환 조건은 개보수는 2년 거치 3년, 증축은 3년 거치 4년, 신축은 4년 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전남도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관광진흥기금 620여억원을 조성해 지난해까지 도내 74개 업체에 354억원을 지원했다.

전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국제수목비엔날레, 국제농업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예정된 만큼 도내 관광업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 담양 '운수대통쌀', 유럽 수출길

전남 담양의 '운수대통쌀'이 유럽 식탁에 오른다.

8일 담양군에 따르면 담양에서 생산되는 운수대통쌀 60t이 지난 6일 유럽 최초로 네덜란드와 체코로 수출됐다. 이번 수출은 담양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경기무역공사, 현지 유통업체인 리브라더스(Rhee Bros, Inc)와 계약을 맺어 성사됐다.

담양군은 2018년부터 3년 간 미주 지역으로 39t의 쌀을 수출하는 등 판로 확장에 힘써 왔으며, 지난해 총 사업비 105억 원을 투입해 통합 미국종합처리장(RPC)을 준공하며 철저한 품질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담양(전남)=양수영 기자

## 사천시

### 2023년 농업인 실용교육 실시

경남 사천시는 관내 농업인에게 유익한 영농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2월3일까지 '2023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한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농업인의 한해 영농계획 수립을 위해 작목별 최신 연구 농업기술과 핵심 영농기술을 보급함과 동시에 경쟁력 확보와 소득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매년 초에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이다.

사천시는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관에서 1100여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총 14회에 걸쳐 벼 재배기술 등 13개 품목별 기술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천(경남)=이도식 기자



지난 6일 (왼쪽부터)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대한민국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철우 대한민국의회지사협의회회장, 조재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이 경북도청에 모여 인사를 나누고 있다. /경북도청

## 지방 4대 협의체장, '지방시대 진전' 다짐

경북도청서 신년 간담회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이 경북도청에서 신년 간담회를 가지고 '지방시대의 획기적 진전'을 다짐했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이철우 경북도지사), 대한민국의회의장협의회회장(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조재구 대구남구청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최봉환 부산 금정구의회의장) 등은 지난 6일 경북도청에 모여 신년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새해 덕담을

나누고, 지방 4대 협의체 간 강한 연대로 올 한해를 '지방시대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실질적, 획기적 진전을 이뤄내는 해'로 만들 것을 다짐했다.

또 지난달 23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1차 총회 결과를 함께 공유하고 특히 4대 협의체가 공동 구성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지원단 설치·운영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올해 1분기 개최 예정인 대통령 주재 제3차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주요 안건과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각 단체 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약속했다. /안동(경북)=김삼복 기자 ksb8100@

## 부산 전통시장 33곳, 활성화 공모 선정

중기부 주관... 국비 23억 확보

부산시가 부산 전통시장 33곳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올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3억원을 확보했다.

부산시는 확보한 국비에 지방비 11억원을 포함한 총 33억원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사하구 장림골목시장은 지난해 특

성화첫걸음을 시작했으나 곧바로 문화관광형시장으로 도약해 2년간 최소 8억 2000만원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를 확보했다.

수영팔도시장은 세 번째 도전 만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돼 인근의 사적공원 개발과 연계한 시장활성화 사업이 기대된다. 초량전통시장은 지난해 신설된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됐다.

/부산=이도식 기자

## 경남도

### 33억 들여 지능형 CCTV 설치

경남도는 도내 전 시·군 안전체계 강화를 위해 올해 33억 원을 들여 316개소에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지능형 CCTV)'를 설치한다.

현재 도내에는 여성안심귀갓길,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유흥가 밀집구역 등 곳곳에 CCTV가 3만9000여 대 설치되어 있지만, 아직 치안 사각지대로부터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약자 보호와 범죄 예방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